**막0536** **Ⅰ Note**

**◆ 도우미: ​​믿음이란?**

† 믿음의 정체 - 관리자

토마스 아 켐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읽던 도중에,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하고 묵상 중에

성령님께서 갑자기 믿음에 대한 빛을 비추어 주시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몇자 적어 올립니다.

과연 믿음이란 무엇일까?

나는 믿음, 회개, 침례 등등 기독교의 기본적인 용어들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용어에 대해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는 용어에 대해 의구심 자체를 갖지도 않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믿음’

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교회에서 제대로 된 설교를 들어본 적이 별로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어떤 대상이나 사상에 대한 우리의 신념이나 의지의 작용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네가 잘 헤쳐가리라고 믿는다

나는 내 아들을 믿어, 나는 우리 부모님을 믿어,

나는 이 약을 먹으면 나으리라 믿는다

나는 자유주의 자들의 생각이 옳다고 믿는다”

위에서 말하는 세상적인 믿음의 통념이, 우리 성도들의 기독교에서의 ‘믿음’에 대한

정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하는 ‘믿는다’는 용어는

믿음의 집합을 이루고 있는 여러 부분집합의 한 부분집합에 이루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정수나 본질이나, 실체와는 거리가

멉니다.

위에서 말하는 믿음은 우리의 생각이나, 신념 또는 동의를 말하고 있는 것

정도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나오는 ‘믿음’을 그러한 통념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처음부터 우리는 길에서 빗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변적인 신념이나 사고의 작용은 믿음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

갓난 아기가 어머니에게 찰싹 들어붙어서 젖을 물고 있는 것을 상상하면,

믿음의 본체를 파악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갓난 아이는 혼자서는 존재할 능력도, 독립할 능력도, 자신을 지킬 능력도 없기에,

그의 존재 전부를 누군가에게 의지하여 붙어있습니다,

그의 생존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누군가에게 그냥 들러붙어있는 것입니다.

그는 도움을 주는 어떤 실질적인 것, 능력이 있는 것, 절대적 존재에게 기대고,

의지하여, 붙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엽을 비로 쓸어보신 적이 있나요?

쓸다 보면 잘 쓸리지 않는 낙엽이 있습니다,

낙엽의 끝에는 나뭇가지에 붙어있던 꼬리부분(연결고리)이 있는데, 그 꼬리 부분이

지면의 어떤 다른 것에 걸려있으면, 잘 쓸리지 않습니다,

바로 그 꼬리부분의 연결고리가 바로 믿음에 해당합니다.

수술 받은 환자는 보통 수혈을 받습니다, 수혈을 받기 위해서는 혈액과 주사기와

주사기에 달린 호스가 필요합니다.

바로 주사기와 호스가 믿음에 해당합니다.

주사기와 호스를 통해서 우리가 필요한 혈액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나무의 수액을 전달받는 통로, 혈액을 공급받는 도구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포도나무에게서 수액을 받아, 포도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에게서

수혈을 받아,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우리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해당하는 낙엽의 꼬리부분과 주사기와 호스는 무엇인가 필요한 것을

전달받기 위한 통로와 도구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통로와 도구가 아니라, 수액과 혈액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연결고리를 통해서 전달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많은 이들이 그들의 손에 주사기와 호스를 움켜쥐고 다니면서,

‘우리는 믿는다’, ‘오직 믿음’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주사기와 호스를 손에 가지고 있으면, 그가 병이 낫습니까?

주사기와 호스를 통해 수혈을 받아야 그가 낫는 것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어, 그 수액이나 혈액을 공급받아야

여러분의 병이 낫는 겁니다.

연결고리를 통해 붙어있어 그것과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갑자기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조나 사상이나 생각에 동의하거나 동조하는

우리의 정신의 사변적인 작용을 일컫는 것이라기 보다는,

어떤 사실상의 사실이나 진실이나 실체나 존재에 붙어있어, 그것과 하나가 되어

필요한 자양분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념적인 것이 아니며, 아주 사실적이며,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연합한다, 단일체가 된다, 합류한다, 합체된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가 바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의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과 확대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1504. 내 안에 머무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머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가지가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희가 더 이상 할 수 없느니라.  
(p)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니라(내 안에서 살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살 것이니라), 포도나무 안에 머무르지 않고(포도나무에 생기있게 하나로 합체되어 있지 않고) 자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없는 것과 똑같이, 만약 너희가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너희 역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요1505. 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내 안에 머무르며 또 내가 그 안에 머무르는 자,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는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p)나는 포도나무며, 너희는 가지들이니라, 내 안에서 살며, 내가 그 안에서 사는 누구든지 많은(풍성한)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나 나를 제쳐놓고는(나와의 생기있는 '하나로 됨'으로부터 잘라져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요1506. 만약 사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그는 가지와 같이 내던져져서, 시드느니라.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들을 모아, 불속으로 그것들을 던지니, 그것들이 태워지느니라.  
(p)만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꺾여진 가지와 같이 밖으로 내던져져서, 시드느니라. 그러한 가지들은 주워모아져, 불속으로 던져지니, 그들이 태워지느니라.

예수님의 옆에 서있으면서 사람이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옆에 있는 그 사람 자신이지, 예수님과 연결고리를 통해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는 예수님이 세계의 4대 성인이신 것을 믿어, 나는 그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어, 그분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셨어, 나는 그분을 믿는다"라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신념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그 자양분을 받고 있지 못하다면, 그들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고 있는 것이, 그분에 관한 여러분의 신념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의 가속 중의 하나가 되어야 그분과 상관이 있게 됩니다.

마0723. 그리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기노스코:알다,허락하다,알게 되다,느끼다,인식하다,알아차리다,확신하다, 이해하다) 못하였느니라, 내게서 떠나라, 너희 무도한 불법(아노미아:불법,위법,범법, 악함,부정,불의)을 행하는 자들아.

그들이 왜 포도열매를 맺지 못하고 무도한 불법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그들은 주사기를 손에 들고다니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했지,

그 주사기를 통해 포도나무의 수액을 받지 못하여 포도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믿음’은 미혹이며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속이 비어있는 imitation 열매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그들이 받은 율법을 이행하려고 갖가지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열매에 속을 채우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의 열매를 채우려고 전혀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행함(열매)을 부인합니다.

성령의 열매인 행함을 강조하면, 율법주의자, 이단자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함으로 구원받나?’하며, 무지한 말을 막 토해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어, 빈 껍데기의 믿음을 지니지 마세요

Ω약0214. 내 형제들아, 어떤 이가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지라도 행함들이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할 수 있느냐?

Ω약0220. 그러나, 오 속이 비어있는 자여, 행함들이 없는 믿음이 죽어 있는(생명 없는) 것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자, 이 행함에 대해서는 별도의 note를 작성하여 제시할 것입니다.

지금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한 부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악령들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지, 예수님께 접붙여져,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 이어 붙여져(접붙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있느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의 문제란 것입니다.

붙어있는 사람은,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빨듯이, 예수님 나무의 수액(영양분)을

공급받아 자라서, 예수님 나무와 동일하게 변하여 가며, 혈액형도 예수님 나무의

혈액형으로 바뀌며, DNA도 예수님 나무의 그것과 같게 되며, 맺는 열매도 예수님

나무가 맺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싫든 좋든, 예수님 나무가 맺는 열매인 포도열매를 그도 맺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열매를 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0718. 훌륭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썩는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맺는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접붙여져 있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에수님과 혈액형도 다르면서, DNA도 다르면서,

포도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들을 무성하게 내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믿기만 하면 돼,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가 천국에 가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른 팔은 염소의 팔이고, 예수님의 왼 팔은 이리의 팔이며, 예수님의 오른

발은 사자의 발이고, 예수님의 왼 발은 호랑이의 발입니까?

가장 순수하시고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예수님을 세상의 각양 잡동사니로 모자이크한

모습으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오, 예수님 용서하소서)

그것은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혹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도 하고, 새벽기도도 나가고, 각양의 봉사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좋은 것들이며, 권장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어 하나가 됨을 입증하는 것들은 못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고, 하나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마0718. 훌륭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썩는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마07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옷차림이나, 능력이나, 재력으로는 그들이 예수님께

접붙여져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내는 열매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과 다른 눈매를 보이면서, 예수님과 다른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있다고 말

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0722. 그 날에 많은 이들이 내게 말할 것이니라 곧, 주여, 주여, 우리가 당신 이름의 권위로(오노마:이름,권위) 대언하지 않았나이까? 또 당신 이름의 권위로 악령들을 내치지 않았나이까? 또 당신 이름의 권위로 많은 불가사의한 일들을 행하지 않았나이까?

마0723. 그리고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공공연히 말할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기노스코:알다,허락하다,알게 되다,느끼다,인식하다,알아차리다,확신하다, 이해하다) 못하였느니라, 내게서 떠나라, 너희 무도한 불법(아노미아:불법,위법, 범법,악함,부정,불의)을 행하는 자들아.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용하신 그릇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예수께 붙어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사용하셨지만,

그들은 올바르게 반응하여, 예수님께 붙어있지(믿지), 하나가 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2214. 이는 많은 이들이 부름을 받으나, 선택되는 자는 극히 적음이라.

그들은 자신들이 부름을 받아, 사역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들은 속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고, 기독교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믿었다면,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냈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었던 열매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불행히도 그들은 무도한 불법의 열매를 냈습니다.

마0718. 훌륭한 나무가 악한 열매를 낼 수도 없고, 썩는 나무가 훌륭한 열매를 낼 수도 없느니라.

마0720.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들로, 너희가 그들을 알아보느니라(에피기노스코:어떤 표식을 알다,인식하다,전적으로 알게 되다,인정하다,알다,지각하다)

그들이 예수님께 붙어있었다면, 포도열매를 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접붙여 있었다면, 그들은 포도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요,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좌우되는 중요한 것을 거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오직 믿음’을 앵무새처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성도들의 혼이 처할 실상을 염려하여, 과연 그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려고 애쓰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믿음(붙어있음)’과 ‘그 열매’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선생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배출됩니다,

가이드가 눈이 멀어있으면,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새로운 신도들이 자기들도 모른 채, 빗나간 길로 접어들고 있으며,

세상은 무도한 열매를 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

진리의 한쪽 면만을 말하지 마십시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셨고,

무덤의 돌을 치우고, 수의를 풀어주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일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고

그 은혜에 바르게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인간의 피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나 한 사람의 피는 아마도 한 사람의 죄값만을 대속할 수 있을 것이나,

그분의 피는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피는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담보가 되며,

대가가 되며,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의 죄도 대속하셔서,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나요? 물론 아니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는 교회에 다닌다고 대속해 주시지도 않습니다.

1요0107. 대신에 만일 그분이 빛 가운데서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걷는다면, 우리는 서로간에 사귐(교제)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1요010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은 신의가 두터우시고 적법하셔서, 우리에게서 우리의 죄들을 사면하시고, 또 온갖 법적 불결(不潔)로부터 우리를 씻어 깨끗이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무조건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 “~하면”이라는 우리가 반응하고, 우리의 몫으로 해야 할 부분과 조건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나무에 붙어 있다면, 그분께서 그분의 수액(보혈)으로 접붙여진

우리를 매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말씀을 읽을 때에,

‘믿는다’라는 말에 ‘붙어있다’를 대입해서 읽어보세요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마0928. 그리고 그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소경들이 그분께 오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그분께 여쭈니라, 예, 주여,

요1630.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는 것과①, 누군가가 당신께 묻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으심을② 이제 우리가 확신하나이다. 이것에 의해 당신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오셨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요1631. 예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니라, 너희가 이제 믿느냐?

마0928. 그리고 그분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니, 소경들이 그분께 오니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그분께 여쭈니라, 예, 주여,

막0536. 예수께서 말해지던 그 말을 들었던 즉시, 그분께서 회당의 관리에게 이르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비바람이 몰아쳐도, 폭풍가가 밀려와도

우리는 나무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더욱 힘을 내어 바싹 나무에 붙어있어야 합니다

나무에서 떨어지면?

그걸로 끝이며, 곧 시들어버립니다

여기서 말을 맺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면서 믿음에 관한 부분을 뒤지다 보니,

확대번역본에 ‘믿음’에 대한 정의가 잘 나타나 있네요,

제가 번역하였지만, 번역할 때는 이런 깨달음이 없었는데, 이제 다시보니, 참

신기하네요

요0150.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네게 말했음으로, 네가 믿느냐? 네가 이들의 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보느니라.  
(p)예수께서 응답하시니라, 네가 무화과나무 밑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내가 네게 말했음으로, 네가 내 안에서 믿으며, 나에게 의지하며, 내 안에서 신뢰하느냐? 네가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들을 보느니라!

요0935.그들이 그를 쫓아낸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만났을 때,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위에서 믿느냐? (p)그들이 그를 쫓아낸 것을 예수께서 들으시니라, 그리고 그를 만나서, 그분께서 이르시니라, 네가 사람의 아들 또는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믿으며, 그에게 붙어 있느냐?

요1126. 그리고 내 안에서 살며, 믿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p)그리고 내 안에서 살며, 믿기를(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 붙어있으며, 나를 의거해 의지하기를) 계속하는 누구든지 (실제로) 결코 전혀 죽지 않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2029.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믿었느니라.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믿었던 자들은 복되니라.   
(p)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니라,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네가 이제 믿느냐(신뢰하고, 믿음을 갖느냐)? 나를 결코 보지 못하였으나, 그럼에도 나를 믿었으며, 내게 붙어있어, 신뢰하고, 내 위에서 의지했던 자들은 복되며, 행복하고, 시샘받느니라.

요1125.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나는 그 부활이며 또 그 생명이니라, 내 안에서 믿는 자,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사느니라.   
(p)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나는 내 자신이 그 부활이며 또 그 생명이니라, 내 안에서 믿는(내게 붙어있으며, 내 안에서 신뢰하며, 나를 의거해 의지하는) 누구든, 비록 그가 죽을지라도, 그럼에도 그는 사느니라.

요1126. 그리고 내 안에서 살며, 믿는 누구든지 결코 죽지 않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p)그리고 내 안에서 살며, 믿기를(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내게 붙어있으며, 내 위에서 의지하기를) 계속하는 누구든지 (실제로) 결코 전혀 죽지 않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1140. 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만약 네가 믿으려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p)예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니라, 만약 네가 나를 믿고, 나에게 의지하려 하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고 네게 약속하지 않았느냐?

**◆ ​​믿음이란? - 변승우 목사**

◇ 믿음은 율법의 요구를 임의적으로 면제시키고 율법의 대용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 그 자체로 간주될 뿐 그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믿음을 매개체 또는 도구로 하여 의롭다 함을 얻을 뿐입니다.

칭의의 근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근거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만이 칭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가 있는가? 다른 것으로는 안되는가?

믿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 존재하는 그 탁월함이나, 가치 때문이 아니라 ,

이 은혜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이 맺고있는 관계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데,

바로 이 믿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연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몸의 지체들이 머리에, 아내가 남편에게 연합되어 있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케 함으로 거룩해지기 때문에,

즉 믿음이 성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수단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믿고, 거룩해지면 그들의 과거의 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용서될

것입니다.

즉 사람이 믿음과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말은

그 믿음과 거룩함 자체를 보시고 용납된다는 말이 아니고,

믿음과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 마치 그들이 의로운 것처럼 취급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는 율법준수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믿음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의 의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 자체가 의의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것은 사랑으로 역사하여 거룩함을 낳았기 때문입니다(찰스피니)

롬1004. 이는 그리스도는 믿는 낱낱의 자에게 '법적 깨끗함'에 대해서는, 법(法)의 종점(텔로스: 한계로서의 도달점,행위나 상태의 결국,종착,결과,목적,완성)임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는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도 율법적인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의미에서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말입니다(존스토트)

성화와 칭의는 물론 분명히 구별되는 상이한 것이지만, 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으로 홀로 존재하지 못한다.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거룩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다,

칭의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그의 죄를 용서 받아,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이고

성화는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하늘나라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면서 여전히 구원받은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가르침은 ,

마치 사람이 병중에 있으면서 동시에 건강할 수 있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로 모순된

것이다.”